

시험 연습용

수험 번호		성 명	배예진
		평 점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과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보편화에 따라, 획일적인 물리적 망벽이 기술적 장벽이 된다는 한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기법의 등장으로 방어 체계 역시 단순한 내·외망 분리에서 나아가 AI를 AI로 맞서는 의견이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권의 망 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한 뒤 그 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금융감독의 과제에 대해 제시하겠다.

기대효과 1. 기존 망벽이 내뿜는 한계를 보완
 기존 망벽은 크게 두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애플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요인을 내뿜음으로 유효하거나 그 반대로 유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보인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완벽히 원천차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두 번째로 내부직원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내부직원의 모든 활동을 AI의 도움없이 추적하려면 업무시간 전체를 모니터링 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무리가 있다. AI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비정상적 움직임을 경시 및 기록장치가 가능해진다. 즉 존재하는 행위를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행위를 활용한 비정상적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대효과 2. 업무 효율성 제고
 AI를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포착하는 것이 가능해져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문서 작성, 인사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업무는 작업하는 인포를 구축해 인력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리스크 역시 분명하다.

리스크 1. 학습 오류 리스크
 AI는 결국 데이터 기반 학습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체계이다. 여기서 두개의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데이터는 학습하는 것이다. 해당 움직임이 학습오류로 정상적 움직임으로 학습이 된다면 이를 포착할 수 없게 되어 시스템상 규명 곤란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판매 중심적인 움직임이 해당 동작으로 인식된다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비될 수 있다.

리스크 2. 대외적 중·편파는 시스템 간의 양극화 문제이다

대기업은 A를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큰 초기비용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는 인프라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격차 역시 크게 벌어질 수 있다.

리스크 3. 책임소재와 법적 구제 체계의 미비

같은 체계가 차등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할 리스크를 알 수 없게 되어서 체계 역시 미비할 수 있다. 당분간 같은 체계는 이를 지켜나 가지 않으나 일부의 경우와 달리, 체계 적용은 각 기업의 재량에 의해 달라진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역시 기업 자체의 책임이 되어 막대한 비용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과제로는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핵심요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접근과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최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못하게 확신을 확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편파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적 금융에 초점을 맞춘 것은 물론이다. 정책금융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적절한 지원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책임소재를 묻기 전에 보완이 잘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우선이다.

사내/외부

관련금융당국의 지원뿐만 아니라 보완 방법 기업의 사내 금융 및 사외 금융을 통해 상생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같은 리스크를 하중에 내야 한다.